

## AIMS

- 간호현장에서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실습기회 제한되고,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함
- 인턴십 프로그램은 간호전문직에서 학생들이 발전된 실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간주되고,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불안을 줄이고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인턴십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자료로 재공하고자 함

## METHODS

- 연구설계
  -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파악
  -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로 변수 간 상관관계와 프로그램 효과 측정

➤ 연구대상자
  - 연구목적과 내용 이해 후 연구 참여 동의한 4학년 간호대학생 편의모집
  - 구조화된 설문지로 인턴십 프로그램 전과 후 자료 수집
  -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보
  - 탈락율 10% 고려하여 실험군 37명, 대조군 35명 참여
- 연구도구
  - 의사소통능력 : Rubin(1990), 허경호(2003)
    -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 s α = .7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2
  - 문제해결능력 : 이석재 등(2003)
    - 개발 당시 Cronbach ' s α = .9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 s α = .94
  - 취업준비행동 : 고완숙(2014)
    -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 s α = .94

➤ 자료분석
  -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의 효과는 각각 paired t-test로 분석
  -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

## RESULTS

Table 1. Homogeneity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72)

Characteristic Categories		Exp. (n=37)		Cont. (n=35)		χ <sup>2</sup> or F	p
		n	%	n	%		
Age (year)	≤25	29	78.4	29	82.9	0.61	.737
	≥26	8	21.6	6	17.1		
Religion	Christianity	18	48.7	9	25.8	6.39	.094
	Catholicism	2	5.4	6	17.1		
	Buddhism	1	2.7	0	0		
	Other	16	43.2	20	57.1		
Number of friend	1~2	2	5.4	3	8.6	0.53	.767
	3~4	9	24.3	10	28.6		
	≥5	26	70.3	22	62.9		
Relationship with parients	Moderate	3	8.1	6	17.1	1.84	.398
	Good	34	91.9	29	82.9		
Major satisfaction	Moderate	4	10.8	6	17.1	4.21	.379
	Satisfied	15	40.5	13	37.1		
	Very satisfied	18	48.6	16	45.7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mmunication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mmunication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mmunication skills	1		
Problem solving skills	.574**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353*	.598**	1

\*p<.05, \*\*p<.01

- 효과검증결과
  - 실험군 의사소통능력 점수 3.84±0.31에서 중재 후 4.24±0.37점으로 증가
    - 통계적으로 유의함(F=8.83, p=.004 )
  - 실험군 문제해결능력 점수 3.92±0.41에서 중재 후 4.07±0.40점으로 증가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F=0.22, p=.643 )
  - 실험군 취업준비행동 점수 3.50±0.64에서 중재 후 3.85±0.42점으로 증가
    - 통계적으로 유의함(F=-2.69, p=.010 )

## CONCLUSIONS

-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행동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과 취업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음
-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는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취업준비행동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한 취업준비행동을 나타냈음
- 간호대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의사소통능력과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
- 본 연구를 통해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론 교육과 임상 실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에 대한 이해 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접근을 제언함